외화 빼돌리고 국부 유출…국세청, 역외탈세 53명 세무조사

국내소득 국외 부당이전…국내 반입할 소득도 빼돌려
환율안정 방어수단 외화 빼돌려…반사회적 역외탈세
“외환위기 때 국민 힘 모아 기업 일으킨 역사 무색해”

국세청이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국부 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 총 53명이다. 이들은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 등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사주가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포착됐다.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취한 뒤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특수로 늘어난 국내 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하거나, 다국적 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해 국내 과세를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추징세액 4조149억원 가운데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 국장은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며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막아라…정부 한 달간 ‘집중 소독’

중수본,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 실시
효과 좋은 오후 2~3시 집중 소독 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는 11개 시도에서 42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25% 늘어난 수치다.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도 전년보다 138% 증가한 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겨울 철새의 도래도 17% 늘었다.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시베리아 등 번식지에서 철새가 교차 감염돼 국내 유입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16일,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 사육 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의 고병원성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이날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또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수본은 계열화 사업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가금 농장에서 매일 농장을 청소·소독하고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가금 농장 전담관(지자체 공무원)이 매일 담당 농장의 소독실시 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지역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고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금 농장의 소독 상황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소독자원 955여대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해 오염원 제거에 나선다.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수본은 “농장에서 소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가금 농장·시설, 축산차량, 장비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코로나 개량백신 접종간격 120일→90일로

4차 접종 7주 후 면역력↓…美는 2개월 간격 권고

정부가 내일부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접종간격을 이전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에서 3개월(9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문가들과 4차 접종 7주 후부터 중화항체 감소, 변이바이러스 비율 증가, 겨울철 유행 정점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접종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은 “접종 후 10주, 12주, 14주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 감소하고 하위 변이주에 대한 면역 회피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접종간격을 4개월로 했을 때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추가접종 간격을 보면 미국은 2개월, 일본·호주·영국·유럽연합 3개월로, 질병청은 이 같은 해외 동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3개월 간격으로 당일접종과 사전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청은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접종유형을 단일화한다.

다음달 17일부터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 종료와 함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기존백신으로의 3·4차접종도 중단한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지표는 모두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8일까지인 ‘집중 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 50%,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추가접종률은 인구 대비 4.5%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17.9%,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19.1%다.

질병청은 추가 접종건수가 11월1주 3만8000건에서 11월3주 8만1000건으로 2주간 2배 이상 늘었고, 감염취약시설 일평균 접종건수가 2000건 내외에서 5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이날 개최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젊은층도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18세 이상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해주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고, 미국과 유럽은 이미 허가 연령을 6세 이상, 12세 이상까지 확대해서 개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한 60세 이하 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항암치료를 받는다든지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면 꼭 같이 맞아서 가족 내 전파 상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소아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